

‘델타변이·휴가·방학’ 방역 악재…코로나 예측불허 확산세

광주 39명·전남 20명 연일 두자릿수…확진자 절반이상 20~30대
31일~8월8일 유흥시설 영업중단…학원·스터디카페 등 합동점검

광주와 전남에서 매일같이 두 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커지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전파력이 센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과 여름 휴가, 방학이라는 ‘3대 방역 악재’가 맞물리면서 방역당국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와 전남지역 확진자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들로, 활동량이 많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만큼 감염 확산 위험도 커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기준,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39명이 나왔다. 이는 지난 1월 28일 TSC 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54명이 발생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이날 오후 2시까지 18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3371명이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31일 자정부터 다음달 8일 24시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한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조치를 내렸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인 7월26일부터 8월27일까지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4955곳에 대한 방역수칙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현장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새벽까지 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오후 2시까지 추가로 4명이 더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2007명이다.

광주와 전남의 최근 코로나 감염 특징은 20~30대 양성 판정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주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4일은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4.1명이었으나 25일 이후, 확진자는 17명→22명→25명→39명으로 급증하면서 1일 평균 25.7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도 확진자 가운데 20~30대 청년층의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간 전남에서는 1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30대 비율은 20%(37명)에 그쳤다. 반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50~60대 비율은 47.6%(88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선 역전됐다. 20~30대 비율은 갑절 가까이 늘어난 반면 50~60대 비율은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것이다.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전남에선 모두 325명이 확진됐는데, 20~30대 비율은 41.8%(136명), 50~60대 비율은 22.8%(74명)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이를 두고 “휴가철, 방학철을 맞아 청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데다, 장년층 노년층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광주 광산구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구청에서 제공한 우산으로 햇볕을 가린 채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보인다”며 “청년들은 활동량이 많고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 다른 세대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전국에서는 29일 새벽 0시 기준, 1674명이 신규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19만5099명이 됐다. 서울 515명, 경기 469명, 인천 96명 등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64.51%에 해당하는 1080명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하고 있

지만,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가 방역대책을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 조치가 월요일(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

를) 한다는 것인데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자치경찰위, ‘대형 교통사고 대책’ 지휘 발령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카메라 무인단속·위험장소 시설개선 등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전남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형교통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지휘로 발령했다.

29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 20분께 강진 성전면의 한 교차로에서 3.5t 트럭이 농어촌버스와 추돌해 41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 20일 오전 8시55분께 여수 한재사거리에서 승용

차 운송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5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제8차 임시회의를 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경찰청에 ‘대형교통사고 예방 긴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지휘를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휘 내용은 ▲대형교통사고 발생 장소 주

변 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개선책 마련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한 집중 단속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과 협업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위험장소 시설개선 등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에 세부 추진사항을 다음 정기회의 시 보고받을 예정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자치경찰과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라고 보고, 합동점검과 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전남경찰청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55개 지구대·파출소장 보직자의 인사 타당성을 심사하고 전남경찰청에 적합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희망근로사업 8월부터 2763명 투입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을 8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비 80억원을 추가 확보한 전남도는 백신접종 지원에 388명, 생활방역 지원 등에 2375명을 추가 투입하기 위해 총 27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

업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도민으로 제한한다.

희망근로지원사업 분야는 백신접종, 공공시설 방역, 골목경제 활성화, 공공휴식공간 및 문화·예술 환경 개선 지원 등 11개 분야다. 이번엔 대학 방역관리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개월 동안 시급 8720원을 적용받는다. 1일 3시간 적용 시 월 평균 68만원,

1일 8시간 적용 시 182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사업 참여 등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과 읍면동 공공일자리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최정은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폭염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111억원을 들여 22개 시·군 2316명(백신접종 행정지원 542명, 방역 등 1774명)이 참여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통일부 “남북, 화상회의 협의 진행할 것”

장비는 각자…대면회담도 계획

통일부는 29일 남북이 향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과 방역 대면회담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게 화상회의 시스템이나 대면으로 회담하더라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협의를 앞으로 남북이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 화상회의 방식은 남북이 각각 자기 측의 영상회의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측 화상회담장 설치에 정부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지원하는 계획은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북 화상회담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이미 구축된 남북 간 통신회선 중 일부를 남북이 각각 자기 측 영상회의 장비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블 설치 공사 등은 불필요하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남북이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할 의제는 미정이지만 “기존에 이미 남북이 합의한 사안,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제를 정리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연락사무소를 재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전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해선 “친서교환 과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중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신

영